



- 가이드라인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제시가 필요함
- 연구결과 활용가능성
  - 연구결과로 도출된 가이드라인이 검사 시행 및 진료 뿐 아니라 보험심사 및 정책설정에도 도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- 활용 가능성 측면에서 전략 및 추진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됨.
  - 적정진료에 필요한 임상가이드라인을 확립, 의료정책 수립 혹은 보험인정 기준에 기반이 되는 자료로 활용 가능함.
  - 이 연구를 통해서 환자촬영종류별 영상 진단 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적극 활용할 수 있음.
  - 가이드라인의 마련으로 향후 복지부 심평원 등의 정책결정에 활용될 수 있음.
- 연구성과 대외공개 제한 필요성
  - 불필요
  - 연구성과를 학술대회 및 학회지에 공개할 필요가 있음.
  - 영상의학회 산하별 연구가 진행되었고, 일부 영상 진단 방법에 대해서는 학술지에 게재가 되어서 충분한 연구 성과가 있음.
  - 가이드라인의 논문발표는 권고할 만한 사안이어서 인센티브가 필요할 수 있음.
  - 국내 국제 학회등에 적극적 발표로 충분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음.
- 연구성과 대외 홍보 필요성
  - 유관 학회 및 기관에 적극적인 홍보 및 교육패포가 필요하겠습니다.
  - 홍보 및 언론보도를 통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.
  - 가이드라인을 쉽게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웹사이트 혹은 앱 개발이 필요함. 가이드라인의 출판을 통한 홍보 및 활용을 권장함.
  - 개발된 임상지침 가이드라인을 정책 결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함
  -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의료인과 비의료인에게 알려서 널리 쓰일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함

	구 분	평가전문위원	과제담당관	
평가자 확 인	성 명	안양샘병원 과장 전용식 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서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천정은 전북대학교 교수 진공용 울산대학교 교수 이상훈	의료방사선과 과장 이현구	
평 가 보고회	개최일자	2019. 1. 8.	장 소	서울가든호텔 회의실
	참석자	의료방사선과 과장 이현구, 연구사 이정은 안양샘병원 과장 전용식		

	한국표준과학연구원 책임 서영섭 서울대학교 교수 천정은 전북대학교 교수 진공용 울산대학교 교수 이상훈
--	--